

06
2018

재외동포의

창

특집: 현지화 · 글로벌네트워크 강점, 베트남서 차세대 한상 결집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7년간 직접 쓴 기록 ‘난중일기’

전투상황의 상세한 기록뿐 아니라 서민생활상 연구에도 중요 자료



임진왜란 때에 이순신 장군이 친필로 작성한 난중일기 가운데 제권 '임진일기'. 선조 25년(1592) 5월 1일부터 선조 26년(1593) 3월까지 기간이며 27매 분량이다.

난중일기는 모두 8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진왜란 발발(1592년 1월) 이후부터 이순신(1545~1598) 장군이 1598년 11월, 노량해전에서 전사하기 직전까지 7년의 기간을 망라하여 기록한 친필일기이다. 원래 임진일기(1592년), 계사일기(1593년), 갑오일기(1594년), 을미일기(1595년), 병신일기(1596년), 정유일기(1597년), 속정유일기(1597년), 무술일기(1598년)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1595년의 을미일기를 뺀 총 7책이 보존되어 전해오고 있다.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1592~1598) 기간 중 왜적과 싸우면서 틈틈이 계속하여 쓴 것으로, 후손들이 대대로 보존하여 390여 년을 간직해 온 것이다.

이순신은 임진왜란이 터지자 옥포대첩, 거북선이 최초로 모습을 드러낸 사천해전, 당항포해전, 한산대첩 등 곳곳에서 전승을 거두었고, 정유재란 때에는 명량대첩 등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그가 죽은 후 1604년 선무공신 1등에 올랐고, 영의정에 추증되었으며, 충무(忠武)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지극

한 충성심과 숭고한 인격, 위대한 통솔력으로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족사에 독보적으로 길이 남을 인물이다.

난중일기는 개인의 일기 형식의 기록이지만, 전쟁 기간 중 해군의 최고 지휘관이 직접 매일 매일의 전투상황과 개인적 소회를 현장감 있게 다루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나 세계사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기록물이다. 또한, 수군통제에 관한 군사비책과 전황을 보고한 장계의 초안 등이 상세히 수록되어 있어 당시 군사제도에 대해 연구가치가 매우 높은 자료로 평가된다. 당시의 기후나 지형, 일반 서민들의 삶에 대한 기록도 전하고 있어 과거의 자연지형 및 환경, 서민의 생활상을 연구하는 중요한 자료로도 활용되고 있다. 문장이 간결하면서도 유려하며, 현재까지도 우리 국민이 애송하는 시(詩)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문학사적 가치도 매우 높다. 2013년 6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에서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국보 제76호. [\[참\]](#)



- 02 한국의 열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7년간 직접 쓴 기록 '난중일기' 전투상황의 상세한 기록뿐 아니라 서민생활상 연구에도 중요 자료
- 04 특집 현지화·글로벌네트워크 강점, 베트남서 차세대 한상 결집 23개국 90여 명, '제9회 하노이 영비즈니스리더포럼'서 열린 토론
- 06 화제 문 대통령, 6·12 북미정상회담 불씨 살렸다 北 비핵화·美의 적대관계 종식 의지 전달해 상호 오해 불식
- 08 기획 선교와 수력댐 건설로 시작한 네팔 한인사회 히말라야 트래킹 붐 일면서 직항노선 열리고 자영업도 자리 잡아
- 10 글로벌 코리아an 예비선거 1위로 11월 본선 진출한 한인여성 첫 미 연방하원의원 후보 영 김 유럽교민 참여 5·18 추모행사 이끌어 온 재독일 동포 이종현 씨 아르헨티나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 업무 시작한 동포 이영수 변호사
- 12 지구촌 통신원 주미대한제국공사관 복원해 정식 개관... 113년 만에 태극기 게양 일제 강탈 107년 만에 옛 모습 되찾아... 문 대통령 한미정상회담 후 방문
- 13 한민족 공감 美 교과서 한국 관련 내용 확 늘었다... 기존 1쪽에서 10쪽으로 캘리포니아 주 중학교 세계사 교과서... "고국 역사·문화 많이 배우게 돼"
- 14 동포소식 '고려극장' 알마티 한복판에 새 동지... 카자흐 정부가 건물 내줘 외
- 17 동포 캘린더 美 버지니아 주 페어팩스 시의원에 임소정·이상현 씨 당선 외
- 18 유공동포 美해군 최초 여성 장교, 안창호 선생 장녀 '평생 한국인' 안수산 여사 트럼프 대통령, 안 여사 공헌 소개... "미국 드높였다" 찬사
- 19 주목! 차세대 한인 출신 영국 첫 지방의회 의원에 당선된 권보라 씨 "젊은층 주책문제 해결 노력... 한인 출신 정치인 확대 계기 됐으면"
- 20 OKF 뉴스 한우성 이사장 "내국인과 동포간 거리 좁혀야" 외
- 21 우리말 배워봅시다
- 22 동포문학 '이-완'의 까만 구두 손정숙(캐나다) 2017 동포문학상 수필부문 우수상
- 24 고향의 맛·멋 값싸고 푸짐하게 즐기는 소갈비의 감칠맛 '포천이동갈비' 병사들 면회음식에서 관광객 상대하면서 유명해진 포천 대표음식
- 26 재단공지



표지 이야기

재외동포재단 후원으로 5월 7~9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9회 영비즈니스리더포럼'에는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미국, 캐나다, 스페인, 브라질 등 23개국에서 90여 명의 차세대 한상이 참가했다.



04



06



24

발행인 : 한우성 등록번호 : 문화-라 08249

발행처 : 재외동포재단

주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6층, 전화: 82-2-3415-0100, 팩스: 82-2-3415-0117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기획·편집 : 재외동포재단 홍보조사부 prc@okf.or.kr 제작 : 연합뉴스 인쇄 : 평화당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s Foundation)은 대한민국 외교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전 세계 740만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지화 · 글로벌네트워크 강점, 베트남서 차세대 한상 결집

23개국 90여 명, '제9회 하노이 영비즈니스리더포럼' 서 열띤 토론

재외동포재단 후원으로 영비즈니스리더네트워크(YBLN) 주최 '제9회 영비즈니스리더포럼'이 5월 7일부터 9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됐다.

7일 하노이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개회식에는 김도현 주베트남 대사, 기춘 재외동포재단 사업이사, 부 다이 탕 베트남계획투자부 차관, 응엔탄꽁 베트남경제위원회 국회의원, 리딩CEO인 고상구 K&K글로벌 회장과 차세대 한상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차세대 한상은 주최국인 베트남을 비롯하여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 아시아를 비롯해 미국, 캐나다, 스페인, 브라질 등 모두 23개국에서 90여 명이 참가했다.

베트남서 교류 · 사업기회 모색

김도현 대사는 개회식에서 "한국과 베트남 양국은 문화적 · 역사적 · 정서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긴밀하고 성공적인 경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가고 있다"며 "한국의 신남방 정책 추진을 계기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제협력 기회가 확대될 것이기에 한상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기회를 살리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부 다이 탕 차관은 "지난해 양국 교역량이 600억 달러에 달하고 한국이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 지위를 유지하는 등 수교 후 25년간 양국관계는 눈부시게 발전했다"며 "외국 기업의 투자 환경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도 노력하는 만큼 한국기업들도 베트남에서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얻기 바란다"고 밝혔다.

기춘 이사는 "동포사회의 미래를 책임진 젊은 한상들은 현지화와 글로벌네트워크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발전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며 "동포사회와 거주국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역할과 책임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참가자들은 9일까지 분야별 미팅, 경영 노하우 공유, 명사

초청 세미나 등에 참여했고 역량을 키워 경쟁력 있는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한 아이디어를 나눴다.

행사를 준비한 흥선 포럼위원장과 김경록 YBLN 베트남 대표는 “YBLN은 형식보다는 소통과 교류를 중시하고 격의 없이 우의를 다지는 공동체”라며 “친목도 다지지만 그 속에서 다양한 비즈니스가 자발적으로 파생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젊은 한상 네트워크인 ‘영비즈니스리더네트워크’는 30~40대의 젊은 한상을 중심으로 급변하는 세계 경제 환경 속에서 새로운 사업기회를 발굴하고 협력을 도모하는 단체다.

이들은 모국에서 매년 열리는 ‘세계한상대회’ 기간에 ‘영비즈니스리더포럼’을 열어 한인 차세대 경제인들의 교류의 장을 열어왔다.

몇 회에 걸쳐 대회와 포럼에 참석하면서 참가자들 간 유기적이고 능동적인 네트워크의 필요성에 공감하게 되어 2007년 부산세계한상대회에서 ‘영비즈니스리더네트워크(YBLN)’를 결성했다. 당시 20명으로 시작한 모임은 단순 친목에서 벗어나 여러 국가에서 차세대 기업인을 포용하면서 글로벌네트워크로 성장해 현재 31개국에 2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한상대회와 같은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을 통해 네트워크 확장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을 통해 탄탄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30~40대 주축, 장학사업에도 앞장

미국 LA에서 인수합병 및 금융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인 김한신 YBLN 회장은 “세계 각국에 있는 젊은 한인 비즈니스 맨들이 모여 정보 교류는 물론 친목도 다지는 것이 목적”이라며 “특히 올해는 최근 급성장 중인 베트남에서 모임을 갖게 돼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YBLN 회원은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차세대들로 대부분은 능통한 현지 언어는 물론 현지 인맥과 유통망 등 네트워크와 해외 문화에도 익숙하다. 또한 격의없이 교류하면서 조직화된 단체를 통해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다.

YBLN에서는 고국 청소년의 꿈을 후원하고 인재를 양성하

기 위해 장학사업도 펼치고 있다. 2016년부터 전국소년소녀가장돕기시민연합의 추천을 받아 고등학생과 대학생 5명을 장학생으로 선발했다. 이들에게는 학비와 생활비 지원은 물론 장학생 1명당 관심 분야에서 활동하는 국내 회원과 해외 회원 각 1명을 멘토로 지정해 주기적으로 멘토링을 해주고 해외 유학·체험의 기회도 제공한다.

지난해 회원 자녀를 대상으로 회원사 ‘인턴십 체험’ 사업을 시작했고, 자녀들의 정체성을 키워주기 위해 모국에서 ‘YBLN 회원 가족캠프’도 열었다.

또한 지난해 창원세계한상대회에서 OK배정장학재단과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장학 및 멘토링 사업, 글로벌 사회공헌활동 등에도 나서고 있다.

재외동포재단은 오는 10월 23~25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하는 ‘제17차 세계한상대회’ 기간에 ‘영비즈니스리더포럼’을 개최한다.

참가자들은 기업가 초청강연·비즈니스 세미나·지역별 현안 토론·산업시찰·영비즈니스리더의 밤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비즈니스 역량을 강화하고 네트워크 구축활동을 벌이게 된다.

이들은 YBLN에 가입해 글로벌 비즈니스를 확대할 기회도 얻게 된다.

YBLN은 연례 정기포럼과 지역포럼을 비롯해 매년 5월에는 회원들이 있는 각국 도시를 선정해 시티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2010년 LA에서 시작된 시티포럼은 브라질 상파울루, 일본 도쿄, 호주 시드니, 중국 베이징, 미국 뉴욕 등에서 열렸다.

YBLN에는 해외에서 연매출 100만 달러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연매출 2억 달러 이상 기업의 임원이면 가입할 수 있다. **[참]**

1. 베트남 하노이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제9회 영비즈니스리더포럼’에는 23개국에서 90여 명의 차세대 한상이 참가했다.
2. 하노이에서 열린 포럼에서 차세대 한상들은 하노이 투자환경에 대한 설명을 듣고 YBLN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활동에 참여했다.
3. 참가자들은 산업시찰 활동으로 베트남 하노이의 삼성전자 법인을 견학했다.
4. 포럼에서 회원들은 창업·경영 노하우 발표를 통해 서로의 경험을 나눴다.



2



3



4

문 대통령, 6·12 북미정상회담 불씨 살렸다

北 비핵화·美의 적대관계 종식 의지 전달해 상호 오해 불식

문재인 대통령이 닷새 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모두 만나 위태로워 보였던 6·12 북미정상회담의 불씨를 살려냈다.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순항하던 북미정상회담 준비가 난기류를 만난 상황에서 다시금 북미대화의 중재자이자 촉진자로서 북미 간 오해를 불식하며 비핵화 담판에 북미 정상이 예정대로 대좌하게끔 적극적으로 나섰다. 점에서도.

문 대통령은 5월 22일 미국 워싱턴DC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한 데 이어 26일에는 김 위원장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한 달 만에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이 나흘간의 시차를 두고 북미 정상을 직접 만난 것은 무엇보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의 명운을 가를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가 종전과 비교할 때 불안정해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5월 2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날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결과를 기자들에게 직접 설명하면서 “판문점선언의 후속 이행과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준비 과정에서 약간의 어려운 사정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사정들을 불식하고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이뤄내는 것, 그리고 판문점선언의 신속한 이행을 함께 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봤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회담을 제안한 5월 25일 오후는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미국 비판 담화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취소 선언으로 북미정상회담의 성사 여부를 장담할 수 없게 된 시점이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당시의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회담 제의를 받은 문 대통령으로서는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남북정상회담에



1

서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고 판문점선언에서 이를 명확히 밝힌 추동력이 살아있을 때 북미정상회담의 성공까지 견인해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인식이었다는 근거에서다.

워싱턴을 찾아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귀국한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두 번째 만남에서 북미정상회담 성사에 걸림돌이 되는 북미 정상 간 불신의 벽을 좀 더 확실하게 허무



2



3



4

는 데 공을 들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어제 다시 한 번 분명하게 피력했다”고 했다. 그러고는 “김 위원장은 비핵화 의지가 불분명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비핵화할 경우 미국이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체제안전을 보장할 것이라는 점을 신뢰할 수 있는지 걱정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김 위원장에게 앞선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경우 적대관계를 확실히 종식할 뿐 아니라 경제적 번영까지 돕겠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정상 간 직접대화 촉구 이어 실무협상 중요성도 강조

문 대통령은 “북미가 회담에 합의하고 실무협상을 하기로 한 것은 미국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한 것 아닌가”라고 말해 북한의 비핵화와 그에 따른 미국의 후속 조치 이행이라는 큰 틀의 합의에는 이견이 없다는 점도 짚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의 발표 내용 중 눈에 띄는 부분은 북미 간 실무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한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열릴 것인지의 제 협상을 포함한 실무협상이 얼마나 순탄하게 마쳐지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남북미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의 필요성과 원칙에 공감대를 이룬 환경 아래에서 북미 참모와 실무진이 불필요한 힘겨루기를 해서 큰 판을 흐트러뜨리는 것을 경계하고 우려하는 동시에 서로 양보하는 자세로 협상에 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드러낸 언급인 셈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취소를 공식화한 5월 24일 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들을 관저로 소집해 “북미 정상 간 보다 직접적이고 긴밀한 대화로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이

렇게 정상 간 직접대화 희망을 밝힌 데 이어 실무협상의 중요성까지 강조하고 나선 것은 그만큼 회담과 관련한 북미 모든 당사자가 자신의 표현대로 ‘유리그릇 다루듯’ 신중한 태도로 회담 성사에 주력해야 한다는 강력한 ‘촉구’이기도 하다는 분석이다.

남북미 간 종전선언 발판까지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

문 대통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거쳐서 종전선언까지 끌어내야 한다는 견해도 내놓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비핵화와 평화협정, 북미수교 등이 이뤄질 북핵 해결 프로세스의 종착역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에 필요한 동력을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을 통해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완전한 비핵화’를 하고서도 체제안전 보장 여부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내지 못하는 북한에 3자 종전선언은 항구적 평화 체제 정착이 이뤄질 때까지 한시적 안전보장 조치가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5월 22일 한미정상회담에서 판문점선언을 통해 남북이 합의한 종전선언을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미 3국이 함께하는 방안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의견을 교환한 만큼 문 대통령이 이 부분에도 한층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

1.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5월 26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대화하고 있다.
2. 문재인 대통령이 5월 26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방명록에 글을 남기는 모습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켜보고 있다.
3.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월 22일 백악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시작하기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4. 백악관이 6월 12일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제작해 5월 21일 공개한 기념주화.

선교와 수력댐 건설로 시작한 네팔 한인사회

히말라야 트래킹 붐 일면서 직항노선 열리고 자영업도 자리 잡아

해발 8,000m가 넘는 히말라야 14좌 가운데 에베레스트, 안나푸르나, 다울라기리, 마나슬루 등 8좌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의 지붕'으로 널리 알려졌으며, 부처님 탄생지인 룸비니 등 풍부한 관광자원이 위치하여 전 세계의 산악인과 관광객이 즐겨 찾는 나라가 네팔이다. 한국과 네팔은 1974년 외교관계를 수립했지만, 한인 역사는 30년가량 된다. 네팔의 한인 진출은 선교와 수력댐 건설 두 갈래로 시작됐다. 하루에 16시간이나 정전이 계속될 정도로 전력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은 히말라야 산맥에서 발원하는 수자원이 풍부한 네팔의 댐 건설에 참여했다. 한수원이 2개의 댐을 지었고 남동발전은 네팔에서 7천억 규모의 가장 큰 댐을 건설하고 있다. 댐 이외에 도로, 공항항고 등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한국기업이 참여했다.

네팔은 인구의 85%가 힌두교도지만 2008년 왕정이 무너지고 종교자유가 허용되면서 한인 기독교 선교사들이 대거 진출했다. 외교부의 2017년 집계에 의하면 네팔 거주 한인은 816명이다. 이 가운데 선교사는 200~250명이고 부인과 자녀를 포함하면 600여 명에 달한다. 나머지는 자영업 종사자가 100여 명, 대사관 직원, 건설업체, 지상사 요원, NGO(비정부기구) 관계자가 100여 명이다.

자영업은 식당이 주종이다. 히말라야 트래킹을 목적으로 네

팔을 찾는 한국인이 고객. 연간 4만 명에 이르는 트래킹 여행객을 실어나르기 위해 대한항공 직항이 주 3~4편 운항하고 있다. 여행사 직원과 트래킹 가이드도 소수지만 네팔 거주 한인에 포함된다.

“큰돈 벌 수 있는 한국은 네팔인들이 가장 동경하는 나라”

네팔에서 성업 중인 또 하나의 직종은 한국어학원이다. EPS 한국어 토픽시험을 준비하는 한국어학원은 한인이 운영하는 곳만 20곳이고 현지인을 포함하면 네팔 전역에 80곳에 달한다. 네팔은 해외에 인력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 재정수입의 1위가 해외진출 인력의 송금이다. 3천만 명 인구 가운데 300만 명이 해외에 나가 있다. 송금에 이어 기부금과 관광수입이 재정수입의 2, 3위를 차지하고 있다. 네팔인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나라는 단연 한국이다. 해외진출 인력이 가장 많은 곳은 중동 산유국이고 일본 말레이시아도 많이 나가있지만 한국만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곳은 없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최저임금제를 외국인 인력에도 내국인과 동등하게 적용하고 있어 야근을 뛰면 월 200만 원 수입도 가능하다. 일본, 말레이시아 등에서 월 500 달러 받는 것과 비교하면 한국시장은 네팔인들에게 '천국'인





3

1. 네팔 지진 피해 지역에 출동한 대한민국의외국인구호대가 2015년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네팔 박타푸르 피해 지역에서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2. 산악인 엄홍길 대장의 세계 최초 히말라야 8천m 고봉 16좌 등정을 기념하기 위한 11번째 학교가 네팔 남서부 인도 국경 인근에 세워졌다. 사진은 2016년 2월 23일 학교 준공식에서 엄 대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3. 네팔은 해발 8,000m가 넘는 히말라야 14좌 가운데 에베레스트, 안나푸르나, 다울라기리, 마나슬루 등 8좌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의 지붕'이다. 사진은 한국 학생들의 히말라야 트래킹 모습.
4. 수도 카트만두 시내 풍경.
5. 카트만두의 한금학교.

NGO 봉사요원들이 초·중·고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150여 명의 학생 가운데 선교사 자녀가 가장 많다.



4



5

“네팔 대지진 구조활동으로 한인사회 단합 계기 맞아”

네팔 한인회는 1년에 한 번 모임을 하고 있으나 활동이 크게 활발하지는 않은 편이다. 한인사회 구성원이 선교사에 집중되어 있고 한인회 역사가 짧은 데다가 돈을 많이 번 사업가도 없기 때문에 보인다. 모래알 같았던 네팔 한인사회는 그러나 대지진 사태를 맞아 결속력을 과시했다. 대지진은 2015년 4월과 5월 연이어 발생했고 이 지진으로 8천여 명이 숨지고 2만여 명이 다쳤으며 75만9천여 채의 건물

물이 무너지는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다. 임종범 전 한인회장은 “지진 직후 합동재해대책본부를 만들고 단체 SNS로 긴밀하게 소식을 주고받기 시작하면서 소통하는 한인회가 됐다”며 당시 상황을 소개했다.

쏟아져 들어오는 구호물자를 적재적소에 보내는 데는 오지에 들어가 지역민과 밀착해 생활해온 선교사 단체가 힘을 발휘했고 NGO 단체들은 이재민이 재활과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맡았다. 전체적인 조정은 한인회가 나서서 등 유기적으로 움직였다. 긴급 구호가 끝나자 한인회는 현지인 의사협회와 함께 30여 명의 봉사팀을 구성해 이재민 캠프를 찾아다니는 의료봉사에 나섰다.

네팔 이주 한인인 선교사가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더 늘어나지 않고 있다. 카트만두에서 9년째 사업을 하는 김영인 씨는 “네팔이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달리 날씨가 좋고 물가 싸고 치안상태도 좋다. 무엇보다 한국에 대한 인기가 높아 살기 좋다”고 말했다. **창**

Nepal

셈이다. 한국에서 일하다 돌아온 네팔인들은 임금 격차가 너무 커서 자국에서 일하기 어렵다고 한다. 한국 내 네팔인은 공식통계로는 2만 명, 불법체류자를 포함하면 3만 명에 이르는 것을 추산된다.

한국을 무척 동경하는 네팔인들에게 한국문화도 먹혀들 수밖에 없다. 네팔은 인도 발리우드 댄스풍 영화로 대표되는 힌두문화의 영향이 워낙 강해 아시아에서는 한류가 늦게 상륙했다. 그럼에도 드라마 ‘꽃보다 남자’가 대히트를 치면서 주연을 맡은 이민호는 네팔의 ‘윤사마’로 떠올랐고 한류 확산의 계기가 됐다. 네팔 한인사회에서 가장 유명한 인사는 물론 산악인 엄홍길 씨이다. ‘엄홍길휴먼재단’ 상임이사인 엄 씨는 네팔 오지에 학교를 지어주는 봉사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선교사가 많다 보니 네팔 한인회도 선교사들이 주도하고 있다. 한인 선교사들이 모여 사는 곳은 카트만두 버시파티 지역으로 치안이 좋고 타운하우스가 많다. 한글학교와 한인교회가 수도 카트만두에 각각 한곳 있다. 한글학교는 주말에 교민과

김창준 전 의원에 이어 26년 만에 한인 미 연방의원 탄생하나

예비선거 1위로 11월 본선 진출한 한인여성 첫 미 연방하원의원 후보 **영 김**



미국 내 한인 여성으로서 첫 연방하원의원에 도전하는 영 김(한국명 김영옥 · 56) 후보가 6월 5일 치러진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득표율 1위를 기록, 본선인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진출했다. 영 김 후보(공화당)는 캘리포니아 주 연방하원 39지구(노스 오렌지카운티) 프라이머리에서 개표 결과

1만8천637표를 획득해 25%의 지지율로 1위를 차지했다. 길 시스네로스(민주) 후보가 19%로 2위, 필 리베라토레(공화) 후보가 14%로 3위다. 영 김 후보는 시스네로스와 본선 맞대결을 벌인다.

한인 밀집 지역인 플러틴이 속한 이 지구구는 에드 로이스(공화 · 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은퇴 선언을 하면서 무주공산이 된 곳이다. 프라이머리는 11월 중간선거에 나설 본선 진출자를 뽑는 예선전이다. 올해 미 중간선거는 연방하

원의원 전원(435명), 상원의원(100명) 3분의 1, 주지사 등을 선출한다.

캘리포니아 주는 당적과 관계없이 선두와 2위 득표자가 본선에 오르는데 당내에서도 많은 후보가 난립해 경쟁을 벌이고 있어 '정글 프라이머리'로 불린다. 영 김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39지구에는 17명의 후보가 나섰다.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원 출신인 영 김 후보가 11월 중간선거에서 당선되면 미국 내 한인 사회에서는 김창준 전 의원 이후 26년 만에 한인 연방하원의원을 배출하게 된다. 김창준 전 의원이 의원직을 그만둔 시점으로 따지면 20년 만이 된다. 미 연방하원에는 중국계, 일본계 등 다른 아시아계 의원들이 있지만 유독 한인 의원이 오래도록 없어 한인사회의 정치력 신장을 위해 의원 배출이 절실하다는 여론이 드높은 상황이다. 프라이머리에서 1위로 본선에 오르게 되면 그만큼 당선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영 김 후보가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으로 평가된다. 영 김 후보는 1990년 '지한파'인 로이스 위원장과 인연을 맺은 뒤 20여 년간 보좌관으로 활동했으며 보좌관 시절 한미의원연맹 실무를 맡기도 했다.



“동포 청년들 인터넷으로 5·18 잘못 배워, 왜곡정보 막아야”

유럽교민 참여 5·18 추모행사 이끌어 온 재독일 동포 **이종현** 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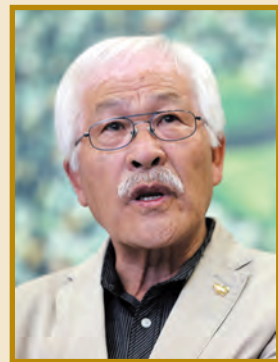
“5·18을 인터넷으로 배우는 동포 청년들이 왜곡된 정보를 접하고 있는데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재독일 동포 이종현(82) 씨는 5월 15일 광주를 찾아 5·18 민주화운동을 38년째 유럽에 알려온 활동이 청년세대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1980년 당시 5·18 진실을 세계에 알리고자 행동에 나섰던 파독 광부 · 간호사 세대와 달리 후손들은 ‘북한군 개입설’ 등 왜곡된 정보를 인터넷으로 접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이 씨는 “5·18을 나쁘게 선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왜곡정보를 제도적으로 막지 못하면 해외 젊은이들은 광주항쟁 진실을 알기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1965년 파독 광부로 독일에 온 이 씨는 1980년 5월 22일 방송뉴스를 통해 광주에서 계엄군이 시민들을 학살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영화 ‘택시운전사’에서 독일 기자로 나온 실존인물이자 ‘푸른 눈의 목격자’로 알려진 위르겐 힌츠페터가 전한 광주 참상은 독일 한인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파독 광부와 간호사, 유학생 등 한인 1천여 명이 그해 5월 30일 베를린에서 전두환 신군부 규탄 집회를 열었다. 또 유럽 곳곳에서 성명을 발표하거나 선전지를 만들어 광주 참상을 국제사회에 호소했다. 당시 유학생들은 베를린 기독교학생회관에서 단식투쟁에 돌입하기도 했다. 평범한 광부이자 간호사로 살던 독일 동포들은 5·18 이후 조국의 민주화를 촉구하는 활동을 펼쳤다.

매년 오월민중제라는 이름으로 유럽 한인이 참여하는 5·18 추모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오월민중제를 주도해온 이 씨는 한민족유럽연대에서 함께 활동하는 윤운섭(70·1971년 파독 광부) 씨와 올해는 5·18 역사현장인 광주를 방문했다. 이

씨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에도 5·18 기념식에 참석하고자 조국을 찾았으나 밭지도 못하고 공항에서 강제 출국을 당했다. 정부는 당시 '대한민국의 이익과 공공의 안전'을 들어 입국을 금지한다며 이 씨를 추방했다. 이 씨는 "그때 마음에 많은 상처를 받았고 가슴이 아팠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11월 G20 회담 계기로 양국 관계 한 단계 높이는 데 힘쓰겠다”

아르헨티나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 업무 시작한 동포 **이영수** 변호사

남미 아르헨티나 동포인 이영수(58) 변호사가 5월 21일부터 마우리시오 마크리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외교안보 수석실 특별보좌관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마크리 대통령은 “부패하지 않고 정직하며 전문 법률지식을 통해 주어진 일을 잘 처리하는 한국계 아르헨티나인”이라며 지난 3월 이 변호사를 특보로 내정했다. 이 특보는 아르헨티나 한인회장과 중남미한인총연합회장, 세계한인회장대회 공동 의장을 지냈다.

이 특보는 “11월 이곳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하는 것과 (특보 발탁이) 관련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성사시켜 관계를 한 단계 높여달라는 뜻이 담겨 있기에 최선을 다해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은 1962년 외교 관계를 수립한 이래 정치·외교적으로는 많은 일을 했지만, 아직 서로 비중이 소원한 것이 사실”이라며 “양국 정상이 만나 통상적 외교 관계가 아니라 친구 사이로 발전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특보는 마크리 대통령과 2011년에도 호흡을 맞췄다. 부에노스아이레스시의 전략기획위원회 수석실장과 시장으로 만

났었다. 당시 부시장으로 일했던 현 국회 상원의장인 마르타 가브리엘라 미체티 부통령과도 오랜 친구 사이다.

1978년 한국이 사들인 아르헨티나 야타마우카 농장에도 관심을 표명했다. 서울시 면적의 3분 1에 해당하는 이 땅은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서북 방향으로 약 980km 떨어진 산티아고 지역에 있다. “이 농장을 한국이 개발하고, 아르헨티나가 보조를 맞추면 큰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 특보의 임기는 2019년 11월 말까지 마크리 대통령 재임 기간이다. 현재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국민 지지도가 떨어지긴 해도 경쟁 상대가 마땅치 않아 마크리 대통령이 재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이 특보는 전망했다.

경북 영천 출신으로 1976년 아르헨티나에 이민해 부에노스아이레스대 법학과를 나와 변호사가 됐다. 2007년 연방 하원 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의 고배를 마시기도 했다. **창**



주미대한제국공사관 복원해 정식 개관... 113년 만에 태극기 게양

일제 강탈 107년 만에 옛 모습 되찾아... 문 대통령 한미정상회담 후 방문

한미 관계의 전초 기지였던 옛 주미대한제국공사관 청사가 역사박물관으로 새 단장을 마치고 5월 22일 정식 개관했다. 이날은 미국과의 첫 외교관계 수립일인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136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올해는 또 고종 황제가 보낸 초대전권공사 박정양이 공식 업무를 시작한 지 13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개관 기념식에서는 1905년 을사늑약에 따른 외교권 박탈로 이 건물에서 국기 게양이 중단된 지 113년 만에 처음으로 국기게양식 행사가 진행됐다.

한미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회담 장소인 백악관에서 약 1.5km 떨어진 공사관을 찾아 전시실을 둘러봤다. 2012년 문화재청이 매입한 주미대한제국공사관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방문한 일은 처음이다.

개관 기념식에서 국기 게양은 초대 서기관이었던 독립운동가 월남 이상재 선생의 증손이 직접 맡았다. 조윤제 주미 한국대사와 김종진 문화재청장, 미국 정부와 의회 관계자, 박정양 초대 공사의 후손, 현지 교민 등도 참석했다. 주미대한제국공사관 청사는 1877년 미국의 정치인이 빅토리아 양식으로 지은 지상 3층, 지하 1층의 벽돌 건물이다. 대지 면적 381.1㎡, 건축 면적 150.98㎡다. 이곳은 1888년 1월 19일 주미 공사관을 개설한 지 약 1년 1개월 만에 이주한 두 번째 청사다. 처음엔 임대였지만 2년여 뒤인 1891년



1889년 미국 워싱턴DC에서 문을 연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의 복원이 완료됐다. 우리 역사상 최초로 서양국가에 설치한 외교공관이다. 사진은 공사관 외부 전경.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5월 22일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을 방문, 전시실을 둘러보고 있다.

12월 고종 황제의 특명으로 2만5천 달러를 주고 매입했다. 당시 통화 가치로 공궐 예산의 절반이 넘는 돈이었다.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은 '자주 외교'를 지향했으나 현실적으로는 역부족이었던 고종과 대한제국의 슬픈 역사를 떠올리게 하는 곳이기도 하다. 1893년 시카고박람회 참가 준비 등 활발한 대미 외교 활동의 중심지로 역할 했지만, 1905년 을사늑약 체결과 함께 공사관의 외교 기능이 정지된 데 이어 1910년 경술국치와 함께 청사 소유권도 일제에 넘어갔다. 일본 정부는 당시 단돈 5달러에 청사를 매입해 미국인에게 10달러에 매각했다. 미군 휴양 시설, 운수노조 사무실 등으로 쓰이던 이 건물은 1977년부터 미국인 부부가 거주하는 가정집으로 활용되다 우리 문화재청이 2012년 10월 350만 달러(당시 환율 39억5천만 원)에 매입하면서 우리 정부의 품으로 돌아왔다.

공사관은 워싱턴 DC 안에 있는 19세기 외교공관 30여 곳 가운데 내외부의 원형이 남은 유일한 건물로 확인돼 미국의 외교사 측면에서도 가치가 작지 않다. 공사관은 매주 월요일만 빼고 연중무휴로 일반에 무료 개방된다. 영어와 한국어를 모두 하는 안내 해설사가 배치되고 인터넷 사전 예약(www.oldkoreanlegation.org)과 현장 접수 방식으로 운영된다. **▶**

이승우 연합뉴스 워싱턴 특파원

美 교과서 한국 관련 내용 확 늘었다... 기존 1쪽에서 10쪽으로

캘리포니아 주 중학교 세계사 교과서... “고국 역사·문화 많이 배우게 돼”

미 캘리포니아 주 정규 학교 청소년들이 올해부터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더 많이 배울 수 있게 됐다. 캘리포니아 주 교육부가 채택할 교과서 ‘역사 및 일반사회과’ (6~8학년·우리의 ‘세계사’에 해당)에 한국의 역사가 고대부터 현대까지 풍성하게 소개됐고, 문화 내용도 상세하게 설명됐기 때문이다.

한국 역사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재미동포 자원봉사 교사들이 2012년 설립한 단체인 ‘에코-코리아’의 최미영 대표는 4월 17일 “지난주 산타클라라 카운티에서 열린 교과서 및 교재 전시장을 방문해 캘리포니아 주 정규 학교에서 사용할 세계사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 평가 자료 등을 살펴봤다”며 “지난해까지 기껏해야 1쪽에 불과하던 한국 관련 소개가 많게는 10쪽까지 늘어나 이제는 학생들이 고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주 교육부는 교과서를 채택하기 전 학부모들이 먼저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최 대표에 따르면, 맥그로힐 교육출판사가 간행한 교과서 ‘세계사와 지리, 중세와 근대의 시기’의 단원 ‘한국과 일본의 문명’에서는 단군시대부터 임진왜란까지 역사적 사실을 정리하면서 10쪽에 걸쳐 한국을 소개한다. 동아시아가 나와 있는 대형 지도에는 동해가 일본해와 병기돼 있다.

내셔널지오그래픽 교육출판사가 만든 같은 제목의 교과서 ‘한국, 인도, 동남아시아’ 단원에서도 한국 소개는 10쪽에 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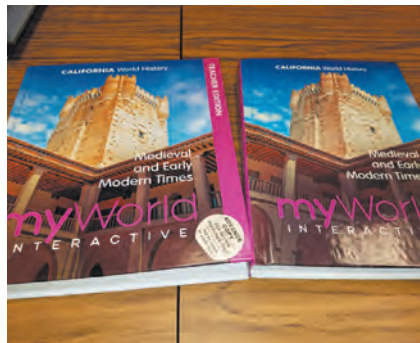
한다. 특히 “고려 시대는 중국에서 받아들인 도자기 기술을 독자적인 한국의 스타일로 발전시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청자를 만들었고, 1377년 인쇄된 직지심체요절은 유럽의 금속 활자보다 78년 앞섰다”고 정확하게 기술했다. 김치와 온돌에 대한 설명도 따로 붙였다.

피어슨 교육출판사는 ‘캘리포니아 세계사, 중세 및 근세’라는 교과서에서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문명’을 다루며 한국을 5쪽에 걸쳐 소개했다. 중국과 한국, 일본의 관계를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했고, 한국에 관해서는 중국의 영향을 받았지만, 독창적인 문화를 발전시켜 ‘문화 교량’(cultural bridge)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교과서에는 한국 관련 내용이 고조선에서 조선 시대까지 1쪽 분량으로 사진이나 큰 글씨 없이 구성됐었고, 일본 관련 부분에 있는 동아시아 지도에도 일본해로 단독 표기돼 있었다”며 “올해 전시된 교과서의 한국 관련 소개는 다양하고 풍성해졌다”고 기뻐했다. 지난해 에코-코리아 여름 캠프에서는 재미동포 초·중·고교생 50여 명이 “우리가 배우는 교과서에 다양한 내용을 실어 미국 친구들과 함께 배우고 싶다”는 내용의 편지를 6개 교과서 출판사와 주 교육부에 보냈고, 이 가운데 맥그로힐이 최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답장을 보내왔다. **창**



캘리포니아 주가 채택예정인 세계사 교과서들. 왼쪽부터 내셔널지오그래픽, 피어슨, 맥그로힐 출판사가 간행한 교과서.



‘고려극장’ 알마티 한복판에 새 등자… 카자흐 정부가 건물 내줘

카자흐스탄 정부가 알마티 외곽의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고려극장’ 측에 시내 중심지의 새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5월 25일 알마티고려문화원(원장 김상욱)이 전했다. 새 극장은 알마티 시홀리나 거리와 바겐바이바트라 거리가 교차하는 중심지에 있으며 2층 건물로 500석 규모다. 2002년 알마티 외곽에 있는 건물을 내줬던 카자흐 정부는 교통문제 등으로 이용이 불편하다는 고려인들의 호소에 따라 이번에 카자흐스탄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건물을 제공하게 됐다고 한다. 이사는 6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고려인들은 5월 23일 새 건물에서 니 류보비 고려극장장과 원로배우, 유가이 세르게이 고려인협회장과 고려인 단체장, 카



카자흐스탄 정부로부터 새로 받은 고려극장 건물 전경. (사진 알마티문화원 제공)

자흐스탄 문화부 인사, 전승민 알마티 총영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행사를 열었다. 니 류보비 고려극장장은 “시내 한복판에 있는 새 건물을 받게 돼 아주 기쁘다”면서 “이를 계기로 고려극장이 카자흐스탄의 문화발전과 고려인 동포사회 내 민족문화 발전의 중심지가 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고려극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해외 극단이자 한반도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한민족 공연단체다. 독립운동가 홍범

도 장군이 경비로 일하며 말년을 보낸 곳으로 알려졌다. 단원은 90여 명이며 지금까지 300여 편의 연극을 무대에 올렸다.

하버드대 출신 양정훈 씨, 美 영주권 포기하고 한국군 복무 선택

하버드대 로스쿨을 나온 재미동포 청년이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고국으로 돌아와 법무장교로 군 복무를 하고 있다. 4월 24일 공군에 따르면 공군본부 법제과에서 국제법 관련 업무를 하는 양정훈(28) 중위는 미 하버드대 로스쿨 출신으로, 미국 뉴욕 주와 매사추세츠 주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 양 중위는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면 병역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를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입대했다. 조국을 지키는 병역의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3월 말 임관해 공군본부에 배치됐다.

초등학교 6학년 때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간 양 중위는 순탄치 않은 학창 시절을 보냈다. 부모가 이민 중개업자로부터



공군본부 법제과에 근무 중인 양정훈 중위(사진·공군 제공).

사기를 당해 경제적으로 곤경에 처한 탓이다. 변호인을 선임할 돈도 없어 억울함을 푸는 데 어려움을 겪는 걸 본 그는 열심히 공부해 가난한 사람을 돕는 법률가가 되기로 했다. 낮에는 식당 청소와 같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야간학교에 다니며 법률가의 꿈을 키웠다. 하버드대 로스쿨 재학 시절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법률 지원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등 법률 지식으로 빈곤층을 돕는 데 힘썼다. 양 중위는 “부족하나마 제가 가진 지식을 조국과 국민을 위해 나눌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저처럼 사회적 조건에 의해 법적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가장 낮은 곳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공익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영국 한인사회 겹경사... 지방선거서 첫 한인 구의원 2명 배출

영국 한인사회가 5월 3일 열린 지방선거에서 2명의 한인 구의원을 배출하는 겹경사를 맞았다. 영국에서 선거를 통해 뽑는 선출직에 한인이 당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영국 제3당인 자유민주당 소속으로 런던 킹스턴 자치구 베벌리(Beverley) 워드(ward)에 출마한 하재성(58) 재영한인총연합회 회장은 전체의 16%인 1천787표를 얻어 당선됐다. 영국 지방의회 구성단위인 구(區)를 뜻하는 워드에서는 인구수에 따라 3명 또는 2명의 의원을 뽑는다.

하 회장은 다른 자유민주당 소속 후보자들과 함께 베벌리 워드 구의원에 선출됐다. 베벌리는 한인 커뮤니티가 형성된 뉴몰든 역과 주변 하이스트리트를 포함하는 곳이다. 하 회장은 2014년 지방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의 고배를 마셨으나



5월 3일 실시된 영국 지방선거에서 한인으로는 처음으로 구의원에 당선된 하재성 씨.

다시 도전한 끝에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하 회장은 당선 직후 “킹스턴 시 인구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한인들의 단합과 권익 신장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이민 1세대로서 최초로 영국 정치계에 진입한 것을 계기로 앞으로 젊은 한인 정치인들이 더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 회장에 앞서 영국 제1야당인 노동당 소속으로 런던 해머스미스 자치구 레이번스코트 파크(Ravenscourt Park) 지방선거에 출마한 권보라(39) 씨는 이날 오전 일찌감치 당선이 확정됐다. 런던 서쪽 지역에 있는 해머스미스는 한인 밀집 거주 지역인 뉴몰든과 거리가 있어 권 씨의 이번 당선은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내년 3·1 운동 100주년 앞두고 LA서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3·1 운동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재단’(이사장 김영진) 남가주 지부(지부장 김재울)가 창립됐다. 기념재단은 5월 9일 미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LA) 시내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부 창립과 활동계획을 알렸다. 김영진 이사장은 “내년 100주년을 맞는 3·1 운동이 아직 유엔·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도 안 돼 있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며 “민족이 힘을 모아 자랑스러운 우리 유산을 세계에 알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재단은 재외 지부를 중심으로 젊은 세대와 다른 인종의 참여를 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모세 남가주 세대계승위원장은 “세대는 바뀌었지만, 역사는 남아 있다”며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1.5세, 2세대들과 외국인들



3·1 운동 핸드사인 알리기.

이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3·1 운동 정신을 계승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재단은 이를 위해 3·1 운동을 상징하는 ‘핸드사인’(Hand Sign)을 개발해 공개했다. 왼손 무명지를 굽은 안중근 의사의 손도장을 본뜬 모양으로 왼손 약지를 접어 숫자 3과 1을 만들어 3·1 운동 정신을 세계에 알리겠다는 취지다. 재단은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핸드사인이 3·1 운동에 대한 세계적 관심을 높여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념재단은 3·1 운동 100주년인 2019년 유네스코에 3·1 운동 기록유산 등재를 신청하고 이듬해 심사 통과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해외에는 LA와 시카고에 지부가 창립됐다.

재일 작가 1~3세대 작품 망라한 '재일디아스포라 문학 선집' 출간

재일동포 1~3세대 작가들의 문학 작품을 망라한 '재일디아스포라 문학 선집' 1~5권(사진·소명출판)이 출간됐다. '재일디아스포라 문학의 글로벌리즘과 문화정치학 연구팀'이 한국연구재단 지원을 받아 엮었다. 김환기 동국대 일본학연구소 소장을 비롯해 총 9명의 연구자가 참여했다. '재일디아스포라'는 해방 이전에 일본에 건너가 해방 이후까지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 또는 그 후손들을 이르는 말이다. 이들은 오랫동안 일본에서 살면서 일본어를 익혔고 일본어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탐구하면서 이국에서 녹록지 않은 삶을 기록하는 다수의 문학 작품을 남겼다. 연구팀은 "일부 대표적인 작가의 작품을 제외하고는 아직 재일디아스포라 문학의 전모를 조망할 수 있



는 작품 소개가 제대로 국내에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 선집 발간은 여태껏 총체적으로 바라볼 수 없었던 재일디아스포라 문학이라는 광맥을 찾는 여정의 출발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다섯 권은 제1권 시선집, 2권, 3권 소설집, 4권 평론집, 5권 연구서로 구성됐다. 시선집에는 시인 40명의 시를 수록했고, 소설집에는 19명의 소설을 담았다. 평론집에는 22명의 글을 묶었다. 선별 기준은 디아스포라 특성이 잘 드러난 작품, 문학·사료 가치를 다층적으로 보여주는 작품, 아직 국내에 소개되지 않았거나 다시 번역해 소개할 필요가 있는 작품, 재일디아스포라 문학의 계보적 흐름을 다양성과 중층성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작품이다.

재일동포의 삶을 다룬 영화 '야키니쿠 드래곤', 전주국제영화제서 개막

올해 19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작인 '야키니쿠 드래곤'은 1970년대 재일동포 가족의 갈등과 화해의 과정을 담은 영화다. 메가폰을 잡은 정의신(61) 감독 역시 재일동포다. 정 감독은 5월 3일 전주영화제작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재일동포의 삶은 잊혀 가는 이야기고, 지금 기록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이야기"라며 "내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영화를 찍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영화 '야키니쿠 드래곤'은 그가 직접 집필한 희곡이 원작이다. 2008년 동명 연극으로 이미 한국과 일본에서 무대에 오른 바 있다. "한일 합작품을 만들어보자는 이야기가 있었고 거기에 시나리오를 쓰게 된 것이 이 작품의 시작이었



5월 3일 전북 전주 영화의 거리 전주동에서 열린 제19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식에서 영화 '야키니쿠 드래곤' 정의신 감독이 영화 홍보물을 들고 있다.

다"며 "내가 태어나고 자란 이야기지만 과연 한국과 일본의 관객이 재일동포 이야기를 좋아할지 몰라 고민이 많았다"고 털어놨다.

고민 끝에 탄생한 연극 '야키니쿠 드래곤'은 관객과 평단으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고,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두 번, 일본 신국립극장에서 세 번 무대에 올랐다. 그는 "연극을 기획할 때 이런 사랑을 받을 것으로는 기대하지 않았다"며 "이 작품을 더 많은 분께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에 영화로 옮기게 됐다"며 직접 메가폰을 든 이유를 설명했다. 이

작품을 발굴한 김영진 전주국제영화제 수석 프로그래머는 "우리가 외치는 보편적 정서가 무엇인지를 창작자가 잘 알고, 그것을 잘 풀어낸 교본 같은 영화"라고 평가했다. **황**

**美 버지니아 주 페어팩스 시의원에
 임소정 · 이상현 씨 당선**

미국 버지니아 주 페어팩스에서 5월 1일 치러진 시의원 선거에서 임소정 전 워싱턴한인연합회장과 이상현 전 버지니아 주 하원의원 후보가 당선됐다. 한인 1.5세인 두 사람은 6월 30일부터 임기 2년의 시의원 활동을 시작한다. 페어팩스에서 종합보험회사를 운영하는 임 씨는 2015~2016년 워싱턴한인연합회장으로 봉사했고, 미 해군 예비역 소령 출신인 이 당선자는 연방의회에서 보좌관으로 근무했다.



**재일동포 어린이들 7월 말 국내서 잼버리…
 “정체성 함양”**

재일본대한민국민단(단장 여건이)은 7월 28일부터 5일간 재일동포 어린이들이 모국에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며 정체성을 함양하는 ‘2018 재일동포 어린이 잼버리’를 개최한다. 일본 전역에서 초등학교 4~6학년 동포 학생 500여 명을 선발한다. 참가자들은 방한 기간 재일동포의 역사와 한국의 발전에 관한 강의를 듣고 초등학교를 방문해 한국 어린이들과 교류활동을 벌인다.



세계 각지 이북도민 100여 명 5월 14~18일 고국 방문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는 5월 14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6개국 23개 지역에 있는 이북도민 107명을 초청해 고국 방문행사를 가졌다. 독일에서 한글을 가르치는 평안남도 출신 김효성 씨 등 고국방문단은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등을 방문하고 판문점과 오두산통일전망대를 견학했다. 국외 이북도민 고국 방문 초청행사는 1996년 시작돼 올해로 24번째다. 그동안 4천200여 명의 국외 이북도민이 초청됐다.



**광주 고려인마을 신조아 대표,
 세계인의 날 대통령상 수상**

광주 고려인마을 신조아(63·사진) 대표는 5월 18일 법무부 주최 ‘제11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에서 고려인 동포들의 국내 정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고려인 3세인 신 대표는 2001년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거주하던 딸을 만나러 한국에 들어왔다가 3개월 관광비자 만료로 불법 체류자로 분류됐다. 신 대표는 광주에 체류하며 2005년 광주에 고려인공동체를 설립했고 고려인동포지원 특별법 개정을 위해 헌신했다.



**브라질 한인 청소년들은 어떤 꿈을 꿀까…
 ‘꿈 발표회’ 열려**

브라질 한인 동포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 계획을 발표하고 꿈을 키우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5월 18일 상파울루 한국교육원(원장 김소연)에 따르면 상파울루 시내 한인타운인 봉헤치루에서 전날 ‘브라질 청소년 꿈 발표 제전’이 열렸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 행사는 나의 꿈 국제재단과 상파울루 한국교육원이 공동 주최했다. 학생의 눈높이에서 꿈을 풀어가는 내용의 순수성과 창의성, 표현력, 발표 태도, 감동 등으로 나눠 평가가 이뤄졌다.



수교 60주년 한국-태국, 태권도로 한 발짝 더 가까이

재태국 한인 태권도 사범연합회는 5월 5일 태국 파타야 시립체육관에서 ‘왕실공주 컵 국제태권도 대회’를 개최했다. 8회째를 맞은 이 대회는 태국에서 유일하게 왕실 타이틀이 걸린 최고 권위의 대회다. 한국과 태국의 수교 60주년을 맞은 올해는 대회 규모가 예년의 2배로 커졌다. 한국을 비롯해 15개국에서 온 2천여 명의 선수단을 포함해 최대 1만여 명이 참여했다고 조직위 측은 밝혔다.



美해군 최초 여성 장교, 안창호 선생 장녀 ‘평생 한국인’ 안수산 여사

도산 안창호 선생의 장녀로 더 유명한 안수산(1915~2015) 여사는 미국 교민사회에서 정신적 지주 같은 존재였다. 평생 미국에 살면서도 부친의 유훈을 간직해 한국인의 정체성을 잊지 않은 여장부였다. 로스앤젤레스(LA)에서 태어난 안 여사는 불과 11살 때 집을 떠난 아버지와 생이별했다. 안 여사는 당시 “훌륭한 미국인이 돼라. 그러나 한국인의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평생 가슴에 간직해왔다.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주립대(CSU 샌디에이고)를 졸업하고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2년 한인 여성 가운데 처음으로 미 해군에 입대했으며, 해군 역사상 첫 여성장교로 복무했다. 아시아계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장교 시험에 한 차례 낙방했지만, 재도전 끝에 해군에 입대한 안 여사는 키 작은 동양 여성이라는 편견을 극복하고 첫 여성 포격술 장교로 근무했다. 해군 정보국으로 자리를 옮겨, 처음에는 아시아계라는 이유로 6개월 동안 암호해독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 차별을 받았으나, 진정성과 용기를 인정받아 암호해독가로 중용됐다. 1945년 종전 후 예편해 국가안보국(NSA) 비밀정보 분석 요원으로 변신해, 1960년 퇴직할 무렵에는 300명 이상의 요원을 거느린 것으로 전해졌다.

안 여사는 “한인이라는 이유로 정보국 내 일부 비밀문서를 볼 수 없었고, 군복을 입고 있어도 차별을 받는 일이 많았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국가를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려고



도산 안창호 선생의 장녀 안수산 여사.

했고 결국 나중에는 모두가 인정했다”면서 “무슨 일이든, 어디에서건 절대 겁을 낸 적은 없었다”고 회고했다.

해군 정보장교로 재직할 때 사건 아일랜드계 미국인 프랜시스 커디와 결혼해 1남 1녀를 뒀다. 가족들과 고급 레스토랑 ‘문게이트’를 운영한 안 여사는 1960~1970년대 도산공원 건립계획이 진행되면서 아버지의 나라 한국과 본격적인 교류를 시작했다. 소장하고 있던 도산 관련 자료들을 기증해 조국의 독립기념 사업을 도왔고, 미국 교민사회에서도 동포 신문인 신한민보, 흥사단, 3·1 여성동지회 등의 단체에서 왕성하게 활동했다.

해군과 NSA 복무, 교민사회에서의 활동을 인정받아 2006년 ‘아시아 아메리칸 저스티스센터’에서 수여하는 ‘미국용기상’을 한인 최초로 수상했고, 2015년 3월 10일에는 LA 카운티가 도산 선생의 순국 77주기를 맞아 ‘안수산의 날’로 선포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5월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 문화유산의 달’을 맞아 안 여사의 삶을 비추고 있게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포고문에서 “아시아계 미국인과 태평양 섬 출신 인사들은 미국의 발전과 다양성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안 여사에 대해 “미국에 이민한 첫 한국인 부부의 딸인 수잔 안 커디는 큰 시련에 직면했을 때에도, 강한 노동 윤리와 국가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 소명에 대한 확고한 헌신을 통해 나라(미국)를 드높였다”고 찬사를 보냈다. [▶](#)

“
트럼프 대통령,
안 여사 공헌 소개…
“미국 드높였다” 찬사
”

한인 출신 영국 첫 지방의회 의원에 당선된 권보라 씨

“아직 한인 출신 정치인이 없다고 하면 다들 놀라곤 합니다. 이제는 한국인들이 정치에 진출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여기는 분위기입니다.”

5월 3일 치러진 영국의 '2018 지방선거'에서 한인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구의원에 당선된 권보라(39) 씨는 이같이 당선 소감을 밝혔다. 권 씨는 영국 제1야당인 노동당 소속으로 런던 해머스미스 자치구(borough) 레이번스코트 파크(Ravenscourt Park) 워드(ward)에 출마해 당선이 확정됐다. 워드는 영국 지방의회 구성단위가 되는 하부 행정 단위로, 우리나라로 치면 동(洞) 정도의 개념에 해당한다.

영국 지방선거에서는 인구수에 따라 워드 별로 2명 내지 3명의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다. 권 씨는 한인 밀집 지역과 떨어진 런던 서쪽의 해머스미스에서 처음으로 선거해 출마해 단번에 당선 영광을 안았다. 해머스미스는 8년간 보수당이 집권하다가 2014년 선거에서 노동당이 집권에 성공했다. 레이번스코트 파크는 올해까지 12년째 보수당 출신들이 지역의회 의원직을 수행했다.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에 대해 권 씨는 “동네에 대한 애정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정치인을 많이 배출한 명문 런던정경대(LSE) 출신으로 평소 정치에 관심이 많았고 노동당에 입당한 뒤 각종 선거와 정치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부모님이 해머스미스 지역에서 식당을 운영해 2010년부터 이곳에서 살았다. 친절한 이웃 주민들 덕분에 동네에 대한 애정이 깊어지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 지방선거 출마를 결심했다고 한다.

영국의 지방의회 의원은 전업 정치인보다는 본업을 갖고 있으면서 별도로 시간을 내 봉사하는 개념이 강하다.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당시 반대 캠페인 진영에서 활동했다.

그는 “저도 한국에서 영국으로 건너왔다. 브렉시트를 찬성



한인 출신 영국 첫 지방의회 의원에 당선된 권보라 씨.

하는 이들은 경제적 문제를 이유로 들지만 (이민 제한 등) 인종차별적인 느낌도 드는 것이 사실”이라며 “런던은 다양한 인종이 함께 사는 곳인 만큼 소통이 계속돼야 한다는 생각에 브렉시트를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지역 내 주택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싶다고 밝혔다.

런던의 주택 가격이 수년간 상승하면서 젊은층은 런던 내 비싼 임대료 등을 감당하지 못하고 외곽으로 쫓겨나고 있다. 권 씨는 “지방의회 소속이지만 런던에 속해 있는 만큼 동네일 뿐만 아니라 브렉시트 등 큰 이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싶다”고 밝혔다.

영국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중국이나 일본은 알아도 한국에 대해 잘 아는 영국인들이 많이 없었다며, “이제는 한류 등으로 모두가 한국을 알고 있으며, 문화 등에 큰 관심이 있다. (한국인으로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창**

“젊은층 주택문제 해결 노력... 한인 출신 정치인 확대 계기 됐으면”

한우성 이사장 “내국인과 동포간 거리 좁혀야”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5월 29일 외교부 출입기자 등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에서 재단 현황과 동포사회 현안 등을 소개했다.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5월 29일 “내국인과 각계 재외동포 사이에 거리를 좁히는 것이 우리 조국의 통일과 통일 한국의 항구적 발전에 결정적 요소”라고 말했다.

한 이사장은 이날 오후 서울의 한 식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그것을 위해서는 두 집단이 서로 알고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의 독립, 산업화, 민주화 요소요소에 동포가 기여했는데도 국민은 잘 모른다”며 “초등학교 모든 학년, 과목의 교과서 105종을 살펴봤더니 ‘재외동포’라는 단어가 한 차례도 나오지 않더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느 특정 정부를 지목해서 말하는 게 아니다”라며 “지난 70년간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고려를 못 했기 때문에 동포에 대해 충분한 철학이 없었고, 그런 철학이 없으니 이제 국가 차원 전략이 개발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이사장은 이어 “만약 다시 개헌 논의가 있다면 똑같은 아니라도 재외국민뿐 아니라 재외동포에 대해서도 ‘지원’이나 ‘교류 강화’와 같은 내용을 담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또 부모가 한국 국적을 보유한 경우 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부여하는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이사장은 먼저 “앤드루 김, 성 김과 같은 인사가 등장하고 있고 미국의 오크리지 지역 방첩단장도 재외동포다. 미국 국제사회에 깊이 들어간 것”이라며 한국계 인사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사례를 거론했다.

그는 이어 “현재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가 한인의 미국 정부기관 진출을 막고 있다”며 “방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인권침해 요소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진으로 부서진 네팔 유일의 한글학교 3년만에 재건축

재단은 2015년 4월 발생한 네팔 대지진으로 파손된 네팔 유일의 카트만두 한글학교의 재건축에 1억6천만 원을 지원해 5월 12일 완공식을 열었다.



지진으로 부서진 네팔 유일의 한글학교는 재외동포재단의 지원으로 3년 만에 재건축을 완료해 5월 12일 완공식을 열었다.

한인교회 근처에 대지를 새로 마련해 2층 건물로 지은 학교는 건평 640㎡에 14개 교실과 화장실·교무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지진에 강한 건축 공법과 자재를 사용했다.

완공식에는 오영훈 재외동포재단 기획이사, 박영식 주네팔한국대사, 최혜웅 네팔 한인회장, 장성권 카트만두 한글학교장, 한글학교 관계자와 지역 한인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분야별 전문가 21명 재외동포 장학생 멘토로 위촉

재외동포재단은 5월 24일 학계·언론계·법조계 등 전문 분야에서 활약하는 21명을 재단 초청 동포 유학생의 멘토로 위촉했다.



재단은 5월 24일 서울 서초구 외교센터의 재단 회의실에서 재단 초청장학생의 멘토 위촉식을 열었다.

멘토로 나선 이는 김명화(주)삼우종합건축사무소 부소장, 김제나 강남구 보건소 8급 공무원, 박성준 하이퍼커넥트 매니저, 신혜선 한양대 교수, 오종진 삼일회계법인 전무, 유병수 흥사단 사무처장, 윤준필 글로벌한상드림 팀장, 정련 유안타증권 과장, 지기성 SAP Korea 부사장 등이다.

멘토들은 중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과테말라 등 재외동포 초청장학생의 모국 생활 적응을 돕고 진로 상담 활동에 나서게 된다.

한우성 이사장은 위촉식에서 “초청장학생들이 모국수학에 잘 적응하고 각 분야별 전문가로 성장하여 모국과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바른 말 고운 말

사사하다

‘사사(師事)’란 말에는 스승으로 섬기거나 스승으로 삼고 가르침을 받는다는 뜻이 이미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 사사 받는다’는 잘못된 표현이고, 누구에게 무엇을 사사했다’ 또는 ‘누구를 사사했다’처럼 사용해야 옳은 표현이 됩니다. 이미 ‘사사 받는다’는 말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서 ‘사사하다’라는 표현이 좀 어색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 쓰다 보면 익숙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봐야겠습니다’와 같은 표현도 자주 듣게 되는데 이것 역시 잘못된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자문(諮問)’이라는 말은 일정한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어떤 문제에 관해 의견을 묻는 것으로 ‘자문위원, 자문기관, 자문하다’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봐야겠습니다’가 아니라 ‘전문가에게 자문해 봐야겠습니다’가 옳은 표현입니다.

정거장과 정류장

“아저씨, 서울역은 여기서 몇 정거장 더 가야 해요” “두 정거장 더 가서 내리시면 됩니다”

버스 안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대화입니다. 여기에서 잘못된 사용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정거장’입니다.

‘정거장’이란 말은 열차가 발착해서 여객이나 화물 또는 열차 편성 등을 다루는 데 사용되는 설비를 갖춘 곳을 뜻하고 다른 말로는 ‘역’이라고 합니다. 이와는 달리 ‘정류장’이란 말은 자동차나 전차 등에 사람을 태우고 내리게 하도록 머무르는 일정한 장소를 가리키는데, ‘정류소’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므로 ‘버스 정거장’이나 ‘택시 정거장’은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이고, ‘버스 정류장, 택시 정류장, 기차 정거장, 지하철역’과 같이 해야 바른 표현이 됩니다. 따라서 앞서 들으신 대화도 아래와 같이 고쳐야 맞습니다. “여기서 몇 정류장 더 가야 합니까” “두 정류장 더 가서 내리시면 됩니다”

날말 맞추기 _ 퀴즈를 풀며 정확한 표현을 익혀요

| | | | | | | | | |
|----|----|----|----|----|----|----|----|----|
| 1 | 2 | | 3 | | 4 | | 5 | 6 |
| 7 | | | | | 8 | | | |
| | | | 9 | 10 | | | | |
| 11 | | 12 | | | | 13 | | |
| | | 14 | | | 15 | | | |
| 16 | 17 | | | 18 | | 19 | | |
| | | | 20 | | 21 | | | |
| 22 | | | | | 23 | | 24 | 25 |
| 26 | | | | | | | | 27 |

▶ 2018년 5월호 정답

| | | | | | | | | |
|---|---|---|---|---|---|---|---|---|
| 백 | 두 | 산 | | | 정 | 강 | 이 | |
| 일 | 삼 | 삼 | 오 | | | | 발 | 목 |
| 장 | 기 | | 뉴 | | | | | |
| | 승 | | 월 | 급 | | | 온 | 천 |
| | 전 | 화 | 기 | 냉 | 장 | 고 | | |
| 동 | 결 | 도 | 금 | | | 지 | | |
| | | | | 강 | | 신 | 발 | |
| 금 | 고 | 타 | 산 | 지 | 석 | | 전 | |
| | 장 | 단 | 점 | | 기 | 중 | 기 | |

▶ 오른쪽 방향 열쇠

1. 무덤의 잡초를 베어서 깨끗이 함
5. 사람의 지혜로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일을 신이 가르쳐 알게 함
7. 비단 위에 꽃을 놓는다는 뜻으로, 좋은 일에 더 좋은 일이 더함
8.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산골
9. 작은 땅 혹은 배필을 팔거나 내고 남은 조각. ‘○투○’땅
11. 추석의 우리말
13. 펜대 속에 잉크를 넣어 쓰는 휴대용 펜
14. 땅속 깊은 곳의 용암이 흘러나와 만들어진 산
15. 한 나라에 들어감
16. 삼다도라 불리는 한국에서 제일 큰 섬.
19. 궤도로 된 철로 위를 달리는 차량
20. 벼를 찧어 쌀을 만드는 일을 하는 곳
22. 살림살이를 일컫는 말
23. 동양이나 서양, 옛날이나 지금을 통틀어 일컫는 말
26. 회사나 기업이 망함
27. 가을에 익은 곡식을 거두어들임

▶ 아래쪽 방향 열쇠

1. 못된 짓에 대한 징계로서 내는 돈
2. 사람의 얼굴을 그리는 사람. ‘○○화가’
3. 얼싸구 절싸구 ‘지○○’종구나. 흥에 겨울 때 내는 소리
4. 전통혼례 때 혼례를 치른 신부가 머리에 쓰는 것
5. 셈을 하는 것 또는 값을 치르는 것. ‘계○’
6.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
10. 타자에게 공을 던지는 야구선수
12. 이성계가 군사를 돌이킨 곳. 압록강에 있다
13. 전 세계의 모든 국기
17. 말을 타고 달리며 산천을 구경한다는 말로 사물의 겉만을 대강 보고 지난다는 의미
18. 꽃 이름. 장미과 식물의 총칭
20. 조선 시대의 벼슬 품계의 하나로 정일품의 다음 단계
21. 중국 시인 소식(蘇軾)의 성과 호를 함께 부르는 말
22. 정치상의 권세를 마구 휘두르는 일
24. 김치를 담글 때 꼭 필요한 매운맛 양념
25. 수를 놓은 비단. ‘○○’강산

‘이-완’의 까만 구두

손정숙(캐나다) 2017 동포문학상 수필부문 우수상

‘이-완’은 좀 들떠 보였다. 여느 때 같으면 병실 문어귀에 서 있어야 할 그가 환관 앞 휠체어에 앉아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눈웃음을 짓고 있었다. 나란히 내려놓은 두발에 까만 구두가 5월의 부드러운 햇살을 받아 유리알처럼 눈부시게 반사하고 있었다.

아들이 차를 가지고 오는 동안 ‘그레샤’를 만나러 간다며 연상 싱글벙글인 것이다. 그때서야 나는 그 옆에 붙어서 있는 ‘잭’을 알아보았다. 어찌 보면 무척 자랑스러워하는 듯도 하고 보내기가 서운한 듯 그늘이 스치는 표정이었다.

문득 이 돌문을 처음 들어서던 때가 그림처럼 스쳤다. 이-완의 본명은 라일리다. 알파벳순으로 붙여진 이(E)병동 1번째 침대주인이라서 간호사나 영양사나 쉽게 E-1(이-완)이라 부르는 것이 그의 이름이 된 것이다. 다섯 사람이 들어있는 넓은 병동의 5번째 침대가 잭의 자리다.

원래 상이군인병원이었던 웨스트민스터병원은 멀게는 제2차 세계대전 때로부터 가까이는 한국전 참전용사까지 입원해 있었다. 한때는 300~400명의 환자가 있었지만 현재는 100여 명의 환자와 참전용사의 연고자들이 입원할 수 있는 일종의 장기요양노인병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빅토리아병원이 그 중 일반 종합병원으로 웨스트민스터나 다른 시설에서 중환자가 생기면 빅토리아병원으로 보내진다. 암병동이나 심장병치료, 연구실도 그곳에 있다. 이-완과 잭이 언제부터 이곳에 있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처음 그들을 만났던 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웃음이 난다.

남편이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나자 오랫동안 놀러왔던 학구열이 충동질치기 시작하였다. 미시간 테스트, 토플테스트, 요구하는 대로 어려운 영어시험을 모두 패스하고 어렵사리 가정대학 식품영양학과에 등록하였다. 항상 곁에서 격려해주던 남편마저도 포기하라고 할 만치 학업은 어려움의 중첩이었다.

친절한 주임교수가 우선 식품명이라도 친근해지라며 병원에 파트타임을 주선해 주었다. 특별배려로 정규직 파트타임이면서 모든 혜택이 주어지고 근무시간만 주 20시간(풀타임은 주 40시간)하는 특수직이었던 것이다. 학교수업에 20시간 근무까지 하게 되었으니 바람만 세계 불어도 날아갈 것처럼 보였다고들 회상한다.

처음 하게 된 일은 특별식 환자들의 식단 관리였는데 아침 열시경이면 특수환자들의 식사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병동을 돌게 된다. E병동에 들어갔더니 한 사람은 침대에 걸터앉아 있고 또 한사람은 그 앞바닥에 꾸그리



고 앉아 구두를 열심히 닦고 있었다.

나를 보자 침대에서 먼저 벌떡 일어나더니 '하이 큐트'(Cute 귀염둥이)하며 앉은 사람 어깨를 탁 쳤다. 그도 벌떡 일어서더니 야! 큐티 하며 달려왔다. 그 후로 내 이름은 큐티 혹은 키티였다. 그들의 이름이 나에게 아-완이고 책이 된 시초이기도 하였다.

아-완은 피부와 머리털이 온통 희었다. 나이는 알 수 없으나 피부가 맑고 투명하여 온 몸에서 정갈한 기품이 배어나왔다. 책은 엷비슷한 나이로 보였으나 순수한 백인은 아닌 듯 햇볕에 그을린 흙색이었다. 그는 매일 아침 아-완의 구두를 닦는 것이 일과인 듯하였다. 별로 신지도 않는 구두를 정성을 들여 닦다보니 까만 구두는 흑진주처럼 반짝거렸다.

그가 구두를 닦는 것을 옆에서 보면 얼마나 엄숙한지 꼭 사병이 상관의 구두를 닦는 것처럼 책임완수의 결의까지 엿보였다. 그의 유일한 낙은 정성들여 닦아서 반짝반짝 빛나는 까만 구두를 아-완이 신고 걷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다.

책의 구두닦이는 E병동뿐 아니라 다른 병동에도 알려져서 일부러 구경 오는 환자들의 소일거리 구실도 하였다. 아-완은 정말 상위군관이었는지 항상 조용하고 화안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구두를 닦아 앞에 놓으면 함박웃음을 띠고 신은 뒤 어김없이 문 앞으로 걸어가서 누군가를 마중하는 자세로 꼴꼴이 섰다.

그의 부인 그레사는 딱 한번 병실에 온 적이 있었다. 역시 조용한 하얀 할머니였다. 몸이 불편하여 집에서 요양한다는 말을 얼핏 들었지만 그 후 소식은 들어보지 못했다. 한 20분 정도 서 있다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도로 제자리에 돌아와 구두를 벗어 침대 밑에 들여놓는 것이었다.

살짝 꺾도를 벗어난 사고력을 지닌 게 아닐까 의심되지만 참 곱게 늙었다는 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였다. 육신에 정력이 왕성하게 넘치던 젊은 날에는 애국과 애족 그리고 인류의 정의와 세계평화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싸우던 용맹스런 군인이었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게 부드러운 성품이 전해졌다.

그 무렵, 정부에서 웨스트민스터 노인병원과 빅토리아 병원을 한데 합쳐 대형종합병원 빅토리아병원연합을 설립하여 웨스트민스터 병원부지에 증설하는 계획안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현 웨스트민스터 병원부지 남쪽에는 종합양로 병원을 건축하고 환자들을 이송하는 방안도 동시에 실행할 계



획이라고 밝혔다. 의사와 간호사 영양사와 모든 의료직원들의 이동이 예상되어 병원은 약간 어수선한 분위기에 쌓여있었다.

학기말 시험을 치르느라 며칠 간 결근을 하고 오랜만에 E 동에 올라가니 문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아-완의 자리가 비어있었다. 바로 어제 밤에 빅토리아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다고 하였다. 주인 없는 아-완의 침대 앞에 꿇어앉아 열심히 구두를 닦고 있는 책의 눈은 젖어 있었다. 아-완이 그레사를 만나러가야 하는데... 웅얼거리고 있었다.

매일 아침 주인 없는 구두를 정성껏 닦고 있는 책과 눈이 마주치면 내가 먼저 코끝이 짙해지곤 하였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날 오후에 병원에 나갔더니 E병동에서 큐티를 찾는다고 빨리 가보라고 하였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를 기다리고 있을 어떤 소식이 무서워서 가슴이 쿵광거렸다. 속마음을 읽을 수 없는 주임영양사는 큐티가 올라간다고 연락했으니 어서 가라며 등을 밀었다. 이층으로 올라가는 슬로프를 돌아 E 병동으로 옮기는 발걸음이 천근같이 무거웠다.

아-완이 떠난 지 벌써 일주일이나 되었는데 생각하니 눈앞이 흐려졌다. D동을 막지나 E동으로 향하던 나는 깜짝 놀랐다. 큐티하며 달려오는 노인들의 맨 앞장에 아-완이 있었다. 너무 하아서 웃는 입과 눈만 보이는 그의 발엔 까만 구두가 반짝거리고 있었다. 아-완은 굉장히 넓은 과수원을 가지고 있었다. 오늘 빅토리아병원에서 퇴원한 기념으로 딸기상자를 밴으로 잔뜩 실어다 병원친구들께 돌리는 중이라고 하였다. 얼른 두 상자를 들어다 주며 반가워서 어쩔 줄 몰라 했다. 마른 과일처럼 조글조글한 얼굴들이 어깨를 얼싸안고 흔들면서 웃어댔다.

E병동에 온 후 아니, 병원이라는 곳에서 근무하는 동안 이렇게 즐거운 웃음잔치는 이때 처음 보았다. 아-완의 아들이 차에서 내려 악수를 청하였다. 아-완은 크게 함박웃음을 보냈지만 아들도 간호사도 마른 미소만 살짝 비쳤다.

오월이 오면, 그리고 딸기가 빨갭게 익는 계절이 되면, 내 눈 앞엔 어김없이 하얀 얼굴에 함박웃음이 가득한 아-완이 찾아들고 눈부시게 반짝이던 까만 구두가 떠오른다. 십 수 년이 지난 지금 아-완이나 그레사나 책이나 다 한 곳에 모여 있을 것이다. 까만색이란 빨강, 노랑, 파랑... 아픔과 고난과 만물의 모든 색을 다 흡수한 색이라고 하지 않는가. 구슬처럼 뭉친 색깔들이 영롱하게 반사되어 오월의 하늘이 그들 모두의 미소처럼 찬란하고 아름답다. [장]

값싸고 푸짐하게 즐기는 소갈비의 감칠맛 ‘포천이동갈비’

병사들 면회음식에서 관광객 상대하면서 유명해진 포천 대표음식



경기도 북부의 도시 포천은 갈비 음식으로도 유명하다. 포천 하면 이동갈비, 이동갈비 하면 포천이 선뜻 떠오른다. 그만큼 이동갈비는 전국적 명성을 얻고 있다. 양질의 소고기를 값싸고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곳이다. 주말이면 이동갈비의 본향인 이동면 일대는 갈비의 맛과 자연의 멋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북적거린다.

이 지역 갈비전문식당은 20여 곳. 이동면 인구가 6천여 명인 점을 고려하면 식당 수가 꽤 많다. 이동갈비가 태동한 때는 1950년대 후반이었다. 휴전선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일동면과 이동면 일대에 군부대가 밀집해 있었는데 이곳 군인들이 즐겨 찾는 음식이 있었다. 값싸고 흔한 돼지갈비였다. 그것이

점차 소갈비로 바뀌면서 장교들의 회식 메뉴는 물론이고 병사들의 면회음식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이동갈비가 대중적 사랑을 받은 것은 1980년대부터다. 등산객과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이동갈비는 일반인들을 주 소비자로 하는 지역대표음식으로 부상했다. 30여 곳에 달했던 갈비식당은 IMF 사태 등의 영향을 받아 지금은 21곳으로 식당 수가 줄었다.

다른 지역의 갈비 요리가 그렇듯이 이동갈비도 생갈비와 양념갈비로 크게 나뉜다. 생갈비는 소고기 원자재를 그대로 사용해 특유의 질감과 맛을 느끼게 한다. 반면에 이동갈비의 진미인 양념갈비는 참기름, 배, 조청, 마늘, 파, 생강 등 각종 재

료로 만든 양념으로 숙성시켜 달콤함 등 다양한 맛을 낸다. 갈비의 맛과 식감을 더해주는 또 다른 비결은 굵은 재료와 방법. 이동갈비 식당들은 대부분 참숯과 실실이 석쇠를 이용한다. 참숯은 열량이 높아 짧은 시간에 갈비를 구워낼 뿐만 아니라 갈비 냄새도 말끔하게 없애준다. 실오라기를 이어놓은 듯한 실실이 석쇠는 열전도 방식의 구리 석쇠나 스테인리스 석쇠와 달리 대류 복사 방식으로 구울 수 있어 고기의 안팎이 잘 구워진 갈비의 맛을 느끼게 한다. 직화구이 방식의 실실이 석쇠를 사용하면 숯불과 갈비 육즙이 조화를 이루면서 소고기 본연의 맛을 향유케 한다.

생갈비는 고기가 금방 익기 때문에 센 불로 살짝 구운 뒤 얼른 꺼내 먹는 게 좋다. 잘 타지 않아 여러 대를 동시에 올려놓고 구워도 되는 양념갈비와 달리 생갈비는 한 대씩 올려놓고 그때그때 먹으면 식감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양념 여부 등의 차이만큼 생갈비와 양념갈비는 먹는 방법에서 약간 다르다. 생갈비는 적절히 잘 구워서 소금에 찍어 먹는 게 일반적이다. 그래야 담백한 소고기의 본래 맛을 온전히 느낄 수 있다. 양념갈비는 파채나 양파 등과 함께 먹을 때 식감이 더 높아진다. 생갈비와 양념갈비를 동시에 시켰다면 생갈비를 먼저 먹고 그다음에 양념갈비를 먹어야 맛의 담백함과 구수함을 온전히 즐길 수 있다. 후식으로는 동치미 냉면이나 국수 또는 공깃밥에 된장찌개가 나온다. 특히 냉면과 국수는 기름진 고기의 맛을 개운하게 해주는 별미다. 기온이 내려갈 때는 따끈한 된장찌개를 찾는 손님이 늘어난다. 이동갈비를 먹을 때 이동막걸리도 한 잔 곁들여주면 금상첨화다. 둘 다 이동면에 뿌리를 두고 있어 미각의 친숙함이 더하다. **[장]**



4



5

1~2. 생갈비는 적절히 잘 구워서 소금에 찍어 먹는 게 일반적이다. 양념갈비는 파채나 양파 등과 함께 먹을 때 식감이 더 높아진다.

3. 실실이 석쇠에서 검은 참숯의 직화로 맛깔스럽게 구워지는 소갈비.

4~5. 소갈비의 후식으로는 공깃밥 된장찌개나 동치미냉면이 좋다.

산정호수

경기도 포천에서 가장 북쪽에 자리 잡은 명성산 아래에 있는 아름다운 호수가 이름도 예쁜 산정호수다. 산정호수의 역사는 일제강점기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1925년 영북영농조합의 관계용 저수지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축조된 것이 바로 산정호수다. '산속에 있는 우물'



포천의 대표 관광지인 산정호수. 일제강점기인 1925년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축조됐고 1977년 국민관광지로 지정됐다.

이란 뜻으로 산정호수라는 이름이 붙었고, 산 안에 있다 하여 '산안저수지'로 불리기도 했다. 첩첩산중에 둘러싸인 우물 같은 저수지였으니 그 풍광은 지금보다 훨씬 아름답지 않았을까 싶다. 산정호수는 1977년 국민관광지로 지정되면서 끊임없이 변화했다. 식당과 숙박업소가 호숫가를 따라 줄지어 들어서기 시작한 것도 이즈음이다. 사람들의 발길이 잦아지면서 수려한 풍경이 식막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호수와 주변 산세가 빚어내는 풍경만큼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아름답다.

국립수목원

국립수목원은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직동리와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에 있는 수목원으로 산림청 산하 정부 기관이다. 조선 시대의 세조는 자신과 왕비 정희왕후 윤 씨의 능을 지금의 광릉 자리로 정하면서 주변 산림도 보호하라고 엄격히 일렀다. 이후 숲이 보존되어 한국전쟁도 건디어 내면서 현재까지 500년 넘게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 천연기념물인 딱따구리와 조류인 크낙새를 비롯하여 여러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이곳에 서식하는 식물의 종류는 900여 종에 달한다. 천연기념물 제197호인 크낙새 서식지인 국립수목원 일대를 천연기념물 제11호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또한, 국립수목원이 자리한 광릉숲은 유네스코의 생물권보전지역으로 2010년에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국립수목원(일명 광릉숲)의 전나무들이 푸른 하늘을 쳐다보면서 위로 향해 있다.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기상을 엿볼 수 있는 전나무 밑에 있으면 대낮에도 햇빛을 잘 볼 수가 없다.

10월 인천 세계한상대회 참가 기업 모집

재외동포재단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오는 10월 23~25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여는 '세계한상대회'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함께 여는 새 시대의 중심, 한상네트워크'라는 슬로건 아래 국내외 4천여 명의 기업인들이 참가하는 행사로, 기업전시회와 한상리딩CEO포럼, 영비즈니스리더포럼, 비즈니스 네트워킹 세미나, 한상&청년 Go Together!,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모집 대상은 제품력은 뛰어나지만 해외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등입니다.

한우성 재단 이사장은 "제조·물류의 중심도시인 인천



이 대회 이전에 송도컨벤시아를 2배로 확장하는 등 어느 때보다 규모 있는 대회로 열린다"며 "대회장을 찾는 중소기업들은 현지 사정에 밝은 동포 기업인을 통해 수출 확대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9월 2일까지 대회 홈페이지

(www.hansang.net)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한상대회 본부사무국(☎02-3415-0052) 또는 SNS인 카카오톡에서 '세계한상대회' 검색 후 친구 추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기간 내에 등록하는 참가자에게는 참가비 할인 혜택을 부여하며 참가비 수입의 일부는 국내 소외계층 대상 장학 사업에 기부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정부 3.0이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정 과제에 대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입니다.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모아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고 특별한 내일을 준비합니다. 개인의 행복이 커질수록 함께 강해지는 새로운 대한민국 그 희망의 시대를 정부 3.0이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중점 추진 과제

•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민·관 협치 강화

•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정부 내 칸막이 해소, 협업·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 운영 시스템 개선,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창업 및 기업 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재외동포의 모든 것! 코리아넷으로



통합 [통]

합니다

740만 재외동포 전문 포털 코리아넷은 재외동포 관련 뉴스, 한국 관련 문화콘텐츠 등을 제공하며, 민원 안내·접수, 재단 각종 사업 안내·접수 등을 통해 재외동포와 모국 간의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코리아

재외동포의
각종 정보 소식 전달

재외동포 지원

비영리단체 홈페이지 지원
재외동포 지원사업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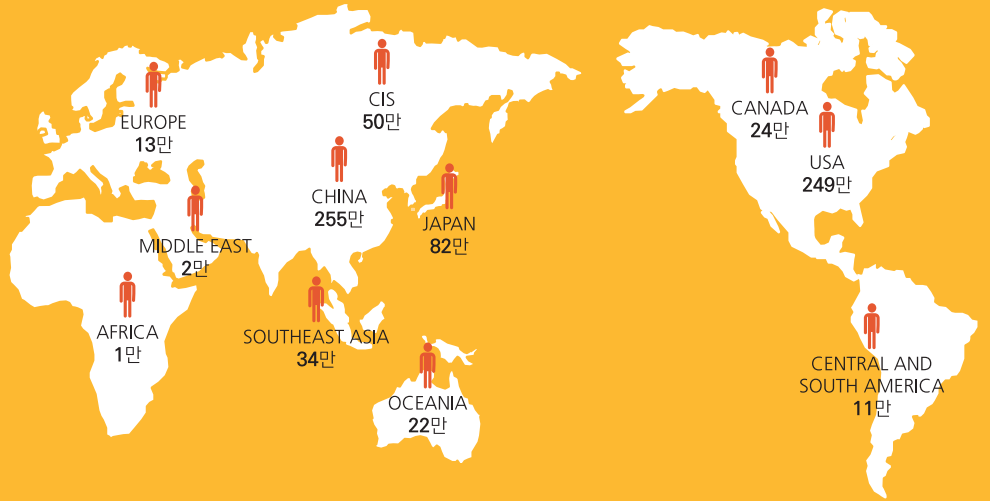
소통과 공감

이벤트 참여 및
커뮤니티 정보 제공

재외동포 신문고

외국 국적 재외동포들의
민원 신청/조회





이민으로
 해 지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그 힘은 740만
 재외동포입니다!

재외동포재단, 세계 740만 재외동포와 함께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스스로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시키며, 역량을 결집하여 모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